

## *Growing in Loving Others Well: Grace–Empowered Hospitality*

### 다른 이들을 잘 사랑하기: 은혜로 힘을 얻은 환대함

#### I. THE BIBLICAL MANDATE OF HOSPITALITY – ALL ARE CALLED

환대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 – 모든 이들을 향한 부르심

- A. From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God's people, one of the God-ordained duties of the righteous was hospitality— meaning, the willingness to welcoming guests, visitors, and strangers into our homes. The peopl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understood hospitality as an ordinance in the law of God. Later, the New Testament reemphasized the **mandate** of hospitality three times for the whole family of God. In other places, the New Testament emphasized hospitality as something we are to embody as a fruit of the grace of God in our lives.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예정하신 의무 중 하나는 환대와 대접이었다. 이는 손님과 방문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우리 집으로 기꺼이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후 신약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가족에게 환대에 대한 명령을 세 번이나 다시 강조했다. 신약의 또 다른 곳에서는 환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여된 열매로써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강조했다.

- B. Hospitality was a command given to **all** believers, regardless of personality type or gift- orientation. No one is “naturally” good at hospitality and many have relegated this expression of loving others to warm extroverts who love company and have a “special gift”.

환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으며, 이는 성품이나 은사의 성향과 관계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환대하는 것을 “천성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을 외향적이고 따뜻하며 사람들을 좋아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뤄버렸다.

*<sup>2</sup>Therefore an overseer must be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one wife, sober-minded,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1 Timothy 3:2)*

<sup>2</sup>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딤후 3:2)

- C. Every overseer or elder in the body of Christ *had* to be “hospitable”. Paul made this a *requirement* for all who were chosen to exercise spiritual government within the church. Why? Because hospitality can be found in the very foundations of the gospel and the early stages of the story of man’s redemption. Therefore, it is a core aspect of the transforming grace of God working within us as we grow in love. In other words, “being hospitable” is evidence that we are cooperating with the grace of God on our lives and is part of what makes us “approved” to govern as an elder or leader in the body of Christ. God desires hospitality to be at the core of every church culture, beginning with godly leadership expressing it to the body in order to build and strengthen a thriving family under His care.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감독과 장로들은 “환대함”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이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진 모든 이들이 갖춰야 할 자격 조건으로 정했다. 왜인가? 이는 환대는 복음의 가장 기초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인류의 구원 스토리의 처음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사랑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즉, “환대하는 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발맞춰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장로나 리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대가 모든 교회 문화의 핵심에 있기를 원하시며, 경건한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몸에 표현해나가기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커나가는 가족을 세우고 강건케 하기 위함이다.

## II. HOSPITALITY: THE BEGINNING OF OUR STORY AND OUR SALVATION – 환대: 우리의 스토리와 구원의 시작

- A. The story of our redemption is one in which God finds a stranger named Abram and enters into a friendship with him. In seeking to redeem all of mankind from our fallen state – our estrangement from God – God shows hospitality to one stranger, later entering into a deep friendship with that stranger’s (now a friend named Abraham) entire family. God showed hospitality to strangers, and from that initial hospitality and welcome built a whole new family to restore the one that had been lost.

우리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방인(외인, 낯선 자들)을 찾으시고 그와 우정을 쌓아가시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인류를 그 타락한 상태 –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에게 환대를 베푸셨으며, 이후에 이 이방인(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친구)의 전체 가족과 깊은 우정을 세워나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셨고, 이 초기의 환대와 환영하심에서 시작해서 잃어버렸던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세워나가신다.

- B. Hospitality was the key to building a family and a “home” on earth from which God could then show hospitality to (i.e. welcome strangers and bring them into His family) every stranger and alien, from every family and nation of the earth. All of us were strangers, welcomed into the family of God – “brought near” and joined to His family, given hope and a powerful future because of who God is and what He is like.

환대는 가족을 세우기 위한 열쇠였고, 이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방인과 외국인들에게, 이 땅의 모든 가정과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환대를 베푸실 수 있는 “집”이었다 (즉, 이방인을 환영하고 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외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인해 그분의 가족으로 초대받고 환영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가까워졌으며,” 그분의 가족이 되었으며, 소망과 능력 있는 미래를 받게 되었다.

***11 Therefore remember that at one time you Gentiles in the flesh...were at that time separated from Christ, alienat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3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11-13)***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sup>13</sup>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1-13)

- C. The writer of Hebrews references this story in Hebrews 13:1-2. He is doing far more than warning us that we may be “entertaining angels”. He is reminding us that the very foundations of the Abrahamic Covenant itself are built around hospitality (Genesis 18-19).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스토리를 히브리서 13:1-2 절에 인용한다. 그는 우리가 “천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자체가 환대를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창 18-19 장).

***<sup>1</sup>Let brotherly love continue. <sup>2</sup>Do not neglec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thereby some have entertained angels unawares. (Hebrews 13:1-2)***

***<sup>1</sup>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sup>2</sup>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 13:1-2)***

- D. In the same manner God showed hospitality to Abraham, Abraham returns it, showing it to the Lord and His angels, who visit him in Genesis 18. It is in the context of hospitality showed to the Lord by Abraham that the Lord expresses the *means* by which the redemption of man would come about: through Abraham and Sarah’s chil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oments of redemptive history – which is why we must not neglect hospitality ourselve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베푸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이를 주와 (창 18 장에서 그를 방문한) 그분의 천사에게 환대를 보이고 베풀어서 그분께 돌려드린다. 아브라함이 주를 향해 환대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인간의 구원이 부여지게 될 통로를 나타내셨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이다. 이는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이며, 이는 우리가 환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 E. The mandate to express the same love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speaks of how we too can be a part of impacting the future of a stranger in dynamic and meaningful ways. By receiving a stranger into our home, we are being used by the Spirit of God to “break into” someone else’s story in a beautiful way, which then causes both of our stories to intertwine and move forward together. This is the heart of biblical hospitality, and how the family of God grows and is strengthened.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명령은, 우리 또한 어떻게 이방인의 미래에 대해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방인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이의 스토리 가운데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함께 엮이고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성경적인 환대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 F. For Israel, the duty of hospitality came right from the core, or heart, of who God is. God declared, “I am the Lord your God; I am the one who made a home for you; I am the One who brought you there with all my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Therefore, you shall love the stranger as you love yourself.” When God proclaims, “*You shall be holy as I am holy*” (Lev. 19:1) He is declaring, “My values shall be your values” or, “Who I am and what I am like will be who you

are and what you will be like”. He *is* hospitable, and is transforming *us* into a hospitable people as we grow in love.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환대의 의무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심과 핵심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셨으며, 내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힘을 다해 너희를 이끈 자라. 따라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 이방인을 사랑할 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다. “나의 가치들이 너희들의 가치들이 되어야 한다,” 혹은 “나의 속성과 성품은 너희의 속성과 성품이 될 것이다.” 그분은 환대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환대하는 백성들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34 You shall treat the stranger who sojourns with you as the native among you, and you shall love him as yourself, for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Leviticus 19:34)***

***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34)***

- G. Grace is the hospitality of God to welcome sinners – He gives strangers favor they do not deserve by lavishing upon them power and riches they could never earn. He uses His divine resource and power to bring strangers into His family and make them great in His sight. He does not do this only for the people He likes – He does this for strangers that do not like Him, are not like Him, have nothing in common with Him, do not “fit in well” with Him, and relate very awkwardly to Him. He deliberately and patiently reaches out to strangers, brings them near to Him, and loves them fiercely and loyally until they feel safe and become a confident, well-loved member of the family. The fruit of His loving hospitality therefore produces hospitable people who naturally do for others what has been done for (and within) them.

은혜는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환대하심이다. 그분은 이방인들(외인들)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능력과 부를 그들 위에 부으심으로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신다. 그분은 그분의 자원들과 능력을 사용해서서 이방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이끄시며, 그들을 그분 앞에 위대한 자들로 만드신다. 그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에게만 이를 행하시는 것이 아닌,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는, 그분의 성품을 닮지도 않은, 그분과 아무 공통점도 없는, 그분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으며, 그분께 매우 어설피게 관계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사려 깊고 인내심 있게 다가가시며, 그분 가까이 이끄시며,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가족의 한 일원으로 깊은 사랑을 받는 이들이 될 때까지 뜨겁고 충성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스런 환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환대하는 백성이라는 열매가 생기게 된다.

### III. THE COMMAND TO BE HOSPITABLE – WHO WE ARE GROWING INTO BY GRACE

환대하는 이가 될 것에 대한 명령 – 은혜로 인해 성장하는 우리의 속성

***13 Contribute to the needs of the saints and seek to show hospitality. (Romans 12:13)***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13)***

- A. In Romans 12:13, Paul stated that all believers are to "Contribute to the needs of the saints, practice hospitality."  
바울은 로마서 12:13 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환대를 베풀어야 함”을 언급했다.
- B. The word “practice” in verse 13 literally means to “pursue”. We are to *pursue* hospitality as a core expression of our faith in Christ. The verb that Paul uses here implies *continuous* action, or a constant attitude and practice.  
13 절에서 “힘쓰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환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추구해야** 한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 또는 지속적인 태도나 행위를 의미한다.
- C. Our homes and apartments should stand constantly ready for “prophetic” (i.e. “Spirit-led”) hospitality—a readiness to welcome guests, visitors, and strangers with love and kindness. Hospitality is something that can easily be neglected in our lives. Paul is asking all believers to exercise the “muscle” of hospitality diligently.  
우리의 집과 아파트는 “예언적인” (성령께서 이끄시는) 환대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손님들과 방문자, 이방인들을 사랑과 친절함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환대는 우리 삶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근육”을 성실하게 연습해 나가기를 말하고 있다.
- D. Our natural inclination is to resist being hospitable. Our “default” in our everyday lives is to rest, gravitate towards the safe friendships and people we have grown to trust, and isolate ourselves and wait for someone to pull us out of our little world that we have built for ourselves. The temptation to retreat into a self-centered life is far more powerful than the unknown reward of welcoming others into our lives and family. In today’s world, it is easier to busy ourselves with tasks and forget that our heart longs – and enjoys – impacting those around us in meaningful ways. We were made to love, but so easily get stuck in our isolated ruts.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은 환대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매일의 삶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경향”은 쉬며, 안전한 친구 관계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작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물러나려는 유혹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우리 삶과 가족 안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인해 받을 알 수 없는 상급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기 쉬우며,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의 갈망하고 있음-즐거워함-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지만, 우리의 고립되고 틀에 박힌 삶에 너무 쉽게 갇혀버린다.
- E. We need grace and help from the Lord to break out of our isolation. We cannot wait for those around us to invite us – we need the power, freedom, and life of the Holy Spirit. This is something far deeper and more powerful than merely being “social”. When we practice hospitality we experience the refreshing joy of becoming conduits of God’s hospitality as it flows through us to those around us, rather than becoming self-centered and stagnant pools. The joy of receiving God’s hospitality withers and atrophies over time if it does not grow and flourish in our own hospitality to

others.

우리 자신의 고립된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해주시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성령님의 능력과 자유, 생명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교제를 잘 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깊고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간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며 정체된 웅덩이처럼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기쁨은 점점 시들고 작아지게 되는데, 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 자신의 환대가 성장하고 풍성해지지 않을 때이다.

- F. Biblical hospitality is an opportunity to grow in thanksgiving towards God for what He has done for us, to grow in our life in the Spirit as we look to be hospitable to others, and experience the thrill of feeling God's power gloriously “interrupt” our own lives and the lives of people He loves – and wants us to love as well.

성경적인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성장하는 기회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환대 베풀기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성령 안에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 사람들의 삶에 영광스럽게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는 전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 G. By grace, Jesus will help us conquer our fears, our lack of generosity, and our self-centered self-protection. There is great joy in experiencing the liberating power of God's hospitality as it renews our heart. His goal is to make us into a radically different kind of family. The family of God is to be populated by those who love to reflect the glory of his grace as we extend it to others in all kinds of hospitality.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과 관대함의 부족,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보호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모든 종류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 IV. HOSPITALITY BECAUSE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1 PETER 4:7-11)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으로 인한 환대 (벧전 4:7-11)

<sup>7</sup> ***Bu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therefore be serious and watchful in your prayers.*** <sup>8</sup>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love for one another, for “love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sup>9</sup>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1 Peter 4:7-9)

<sup>7</sup>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sup>8</sup>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sup>9</sup>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벧전 4:7-9)

- A. Because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v. 7), Peter states in verse 8, “**Above all**, keep loving one another earnestly, sinc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Why **must** we grow in love as history moves closer to the return of Jesus?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에” (7 절), 베드로는 8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져 감에 따라 사랑을 성장시켜야만 하는가?

- B. Jesus stated that the pressure, stress, and trial of the last days work to put every relationship under unprecedented stress (Matt. 24:10). As we grow in love, we grow in our ability to receive one another and enjoy one another in our brokenness and weakness – rather than allowing offense and anger to rule in our hearts.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의 어려움과 압박, 시험들은 모든 관계를 전에 없던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을 말씀하셨다 (마 24:10).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는 실족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두기보다,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즐거워하는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 C. Peter is calling us to draw closer together in light of the end of the age and the trouble that comes with it. He is calling us to bear with one another **and** bear with weakness, brokenness, and sin in each other’s lives. We are not to protect ourselves from one another, but to fight for one another and cover one another in love.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와 그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을 초청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깨어짐, 죄를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싸워나가야 하며 서로를 사랑 안에서 덮어줘야 한다.

- D. Therefore, we reach out to one another intentionally and continually. “Hospitality without grumbling” in verse 9 is the practical means to express that love under growing pressure. It is the way that a heart transformed by grace fights for the weak, the lonely, and the stranger without self-protection and fear. It is the way that we learn to fight for one another, and the greatness and destiny of those around us rather than fighting for our own comfort, our own honor, and our own agenda.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9 절의 “원망 없는 대접”은 증가되는 어려움 가운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는 은혜로 인해 변화된 마음이 자기 보호와 두려움이 없이 연약한 자와 외로운 자, 이방인들을 위해 싸워나가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명예,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싸워나가기 보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 이들의 위대함과 부르심을 위해 싸워나가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다.

- E. Our hearts are open when we connect to the power of God’s heart, open to us. When our hearts are opened by the grace of God to one another, we open our lives and homes to one another as we grow in love. John the apostle connected the love of God with our love for each other in relation to hospitality in 1 John 3:16-17: “By this we know love, because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But whoever has this world’s goods, and sees his brother in need, and shuts up his heart from him, how does the love of God abide in him?”

우리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과 연결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서로를 향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게 되며 우리 삶과 집을 다른 이들에게 열리게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16-17 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환대함으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V. HOW CAN WE GROW IN HOSPITALITY PRACTICALLY?**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대하는 것에 실제로 자라갈 수 있는가?

- A. We can ask these kinds of questions of the Jesus in prayer: How can I draw the most people into a deep experience of God's hospitality by the use of my home or my church? Who might need help in the battle against loneliness? Who are the people who that the Lord wants me to connect with and serve in my home? What new things could happen in my city if I invited the right two or three people from this church to dinner?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저희 집과 교회를 사용해서 가급적 많은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환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까? 혹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혹은 제가 집에서 그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두, 세 사람을 저녁에 초대할 때, 제 도시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 B. Someone who is growing by grace in becoming hospitable is not content to host the same people in their home over and over again. We want the desire to grow within us – as we grow in love – that the hospitality of God would fill our city, starting with the lonely believer sitting in this very room.

환대함으로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계속 반복해서 초청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이 공간에 앉아 있는 외로운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우리 도시를 가득 채우게 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 C. **Five Practical Examples Hospitality:**  
환대의 다섯 가지 실제적인 예

**1. Invite Each Other Home** – Host Dinners, Have Coffee, Join or Lead a Friendship Group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 – 저녁에 초대하고, 커피를 나누며, 프렌드십 그룹에 참여하고 인도하라

**2. Greet and Welcome New People** – Join our Greeting Team, Seek Out Strangers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고 환영하라 – 환영하는 팀에 들어오고, 외인들을 찾으라

**3. Host a Student / Teen** – Welcome, Host, Feed our Students / Interns, Coach / Disciple Teens

학생들과 10 대들을 초청하라 – 우리 학생들과 인턴들을 환영하고 초대해서 먹이라, 10 대들에게 조언해주고 가르치라

**4. Reach out to the Disconnected One** – Be Hospitable to the Wounded, Restore Relationships

단절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라 – 상처 입은 자들을 환대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5. Bring a Stranger Into Your Family** – Adopt, Provide Housing, Rest, Blessing

이방인을 당신의 가족으로 데려오라 – 입양하고, 집과 쉼과 축복을 제공하라.